

지역 소식통

정읍시, 소비쿠폰 집행

행안부 평가 '우수' 선정

정읍시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되며 국비 인센티브를 따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나' 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정책의 집행 성과와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 지자체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는 △지급 실적 △사용률·사용처 확대 △신청·지급 편의성 △홍보 실적 등 정량평가와 우수 사례 정성평가를 병행해 공정성을 기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시민 접근성을 대폭 높인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와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자 확대 전략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적극 홍보로 소비쿠폰의 빠른 확산과 높은 사용률을 이끌어낸 점도 주요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태추단감' 명품화 시동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지역 과수 농업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추단감'의 경쟁력 강화를 나섰다. 센터는 지난 17일 제2차 시재 재배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고품질 태추단감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배 관리와 병해충 방제 기술에 따라 품질 편차가 커 체계적인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경남농업 마이스터대학 서재만 단감 현장 교수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 태추단감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전수했다. 강의는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병해충 방제 요령과 시기별 재배 관리법 등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변산 해넘이축제 31일 개최

병오년 '붉은 말의 해' 맞아... 변산해수욕장에서 희망의 해넘이 선사
오후 2시~밤 9시 진행... 해넘이 5시 30분 전후 다양한 퍼포먼스 예정

부안군은 오는 31일 서해안 대표 해넘이 명소인 변산해수욕장에서 2025년 변산 해넘이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변산의 아름다운 해넘이를 배경으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체합형·감성형 연말 축제로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되며 해넘이가 예상되는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질 예정이다.

식전 행사로는 변산지역 난타팀 '바람꽃난타'와 농악단 '천둥소리'가 흥을 돋우고 이어 3인조 팝페라그룹 '다오니엘'이 무대에 올라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계획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LED 달집 점등식과 소원등 밝히기 퍼포먼스다.

참여자들은 새해 소망을 담은 소원등을 밝히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신년 축하영상 상영과 대북공연 등 개막행사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계획이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부안의 상징인 철쭉 모양 소원지로 꾸며진 '소원꽃밭', '붉은 말' 키링 만들기 체험, LED 쥐불놀이, 감성 불멍존을 비롯해 신년 메시지 포토존, 타로·사주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축제의 재미를 더한다.

겨울 간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포차도 운영된다.

축하공연에는 '트로트 아쟁마' 가수 신승태가 무대에 오르며 해넘이의 감

동을 더하는 불꽃놀이가 겨울 바다의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5 변산 해넘이축제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서로의 안녕과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라며 "변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기억에 남을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도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부안을 해뜰마루 지방정원(오전 7시), 계화면 계중마을회관(오전 6시), 변산면 변산해수욕장(오전 6시), 백산면 백산성지(오전 6시), 상서면 개암사(오전 6시), 하서면 석불산(오전 6시 20분) 등 부안군 곳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도지사 표창 영예·인센티브 최대 1억원 추가 확보

정읍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집행하는 역량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군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년도 사업 예산에 인센티브 최대 1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활성화 △사업 수행 △조직 운영 △지역 특화 등 5개 항목 11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모든 평가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시는 도지사 표창의 영예와 함께, 2026년도 사업 예산에 최대 1억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배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과 인프라 보강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17개), 가시간병 방촌지원사업, 일상돌봄 서비스사업 등 총 20개 사업에 26억 1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관내 18개 제공기관과 협력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 1800명의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기적인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서비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화수 시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모든 제공기관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제320회 정례회 2차 정례회 폐회

행감 통한 128건 지적 및 개선요구·2026년 예산 약 8801억 확정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320회 제2차 정례회를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시책보고, 군정질문과 답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이루어졌고, 폐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6건의 상임위원회 심사 안건과 함께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등 4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건 등 이번 회기 동안 총 31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번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진)를 통하여 심사된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등에 대해서도 처리되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26년 예산안 등에 대해 중점적인 사항은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심사 결과를 마지막 본회의에 회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2026년도 고창군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일부 수정된 약 8,801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행감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환)에서는 행정집행 전반을 보고 받고 불합리한 부분 128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민신문고·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고창군, 각 분야별 5명씩 선정

고창군이 지난 17일 2025년 하반기 민원·국민신문고 응대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시상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은 각 분야별로 5명씩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먼저, 국민신문고 분야는 민원처리 건수, 담당자의 민원요지 파악, 성실한 답변 등을 평가했다. 서민지 주무관(도시디자인과), 김민경 주무관(환경위생과), 고민성 주무관(사회복지과), 박재규 주무관(종합민원과), 유혜령 주무관(문화예술과)이 선발됐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분야는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법정 민원에 대해서 단축 일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했다. 남해원 주무관(사회복지과), 이민해 주무관(환경위생과), 송서경 주무관(신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시상 및 간담회

력경제정책관), 전필규 주무관(사회복지과), 배재영 주무관(해양수산과)이 선정됐다.

고창군수는 시상식 이후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고창군수는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와 민원 실적을 단순한 처리 건수를 넘어 국민의 불편 해소와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중요한 지표다"며,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행정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통합건강증진·영양분야 등 우수기관상 휩쓸어

고창군보건소, 통합건강증진·영양·영양플러스 사업서 인정

고창군보건소가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사업(총괄)', '영양플러스사업'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표창과 우수기관상을 휩쓸었다.

18일 고창군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영양관리사업 유공으로 기관표창 2개를 수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 영양플러스 사업도 전국 우수기관 선정되며 총 3개의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목표로 체계적인 건강증진 정책

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양관리 사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앞서 보건소는 신체활동증진, 만성질환예방, 비만관리, 취약계층 영양지원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주민 만족도를 높여왔다.

특히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통해 건강 형평성 제고에 기여한 점이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전북시민대학 시민학사 2년 연속 배출

부안군은 18일 열린 전북시민대학 성과공유회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참여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2년 연속 시민학사를 배출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부안군은 지역의 역사와 자원을 이해하는 과정부터 디지털·AI를 활용해 지역의 가치를 확장하는 미래역량 교육까지 지난 3년간 축적해 온 학습의 흐름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특히, 2년 연속 수료생을 배출했다는 점은 학습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입증한 대표적인 성과이며, 성인 학습자가 배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고, 지역과 연결된 학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성과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시민대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그려보는 과정"이라며, "여러 시·군이 함께한 사업 속에서도 부안군에서 수료생이 꾸준히 배출됐다는 점은, 배움이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움이 개인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생학습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지역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해 배움이 시작에서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